



알면 알수록

◆ 글을 읽고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찾아봅시다.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말해 봅시다.



?
옛날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



?
하품은 왜 날까?



?
단풍은 왜 들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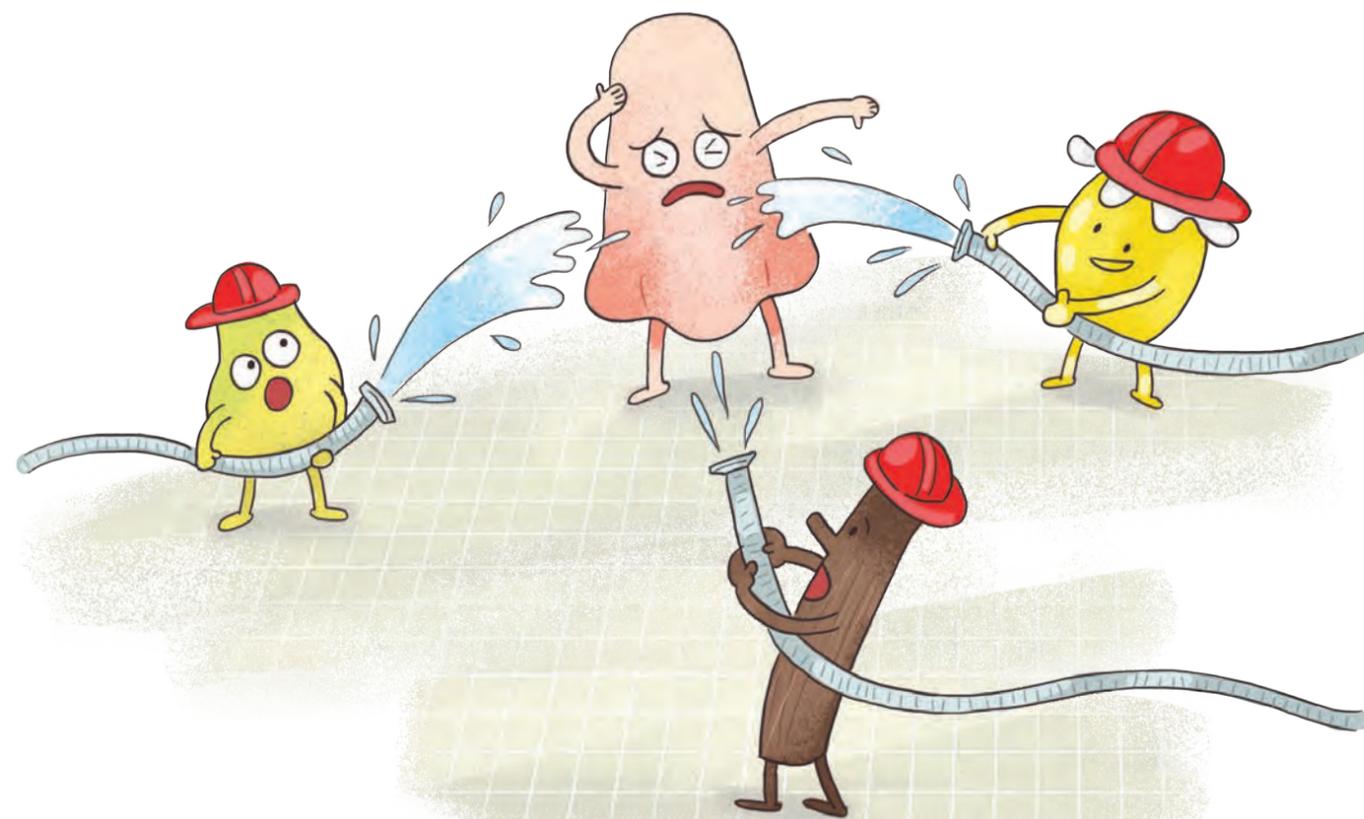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병을 고쳤을까

우리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요. 옛날에도 병원이 있었을까요? 옛날에는 병원도 의사도 많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병을 고쳤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감기를 ‘고뿔’이라고 불렀어요. 코에 불이 난 것처럼 열이 난다는 뜻이지요. 감기에 걸리면 방에 장작불을 때고 온몸에 땀을 내면서 폭 쉬었어요.



또 음식을 이용해서 감기를 낮게 하였어요. 꿀꺽질을 삶은 물을 마시거나 모과에 엿과 생강을 넣어서 먹었어요. 도라지를 꿀에 재워서 먹기도 했어요.



배탈이 났을 때는 엄마가 배를 쓱쓱 쓸어 주면 신기하게도 어느새 아픈 배가 낫지요. 엄마 손이 차가운 배를 따뜻하게 해 주어 치료되는 것이예요. 엄마 손이 약손이 되는 거지요. 또 볶은 소금을 헝겊에 싸서 배꼽 바로 밑에 감아 배를 따뜻하게 했어요.

1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병을 고쳤을까」를 읽고 나의 생각을 이야기 해 봅시다.

1 옛날 사람들이 감기를 ‘고뿔’이라고 부른 까닭은 무엇인가요?

2 아이가 배탈이 났을 때 엄마는 어떻게 해 주었나요?

2 그림에 알맞은 낱말을 글에서 찾아 쓰고,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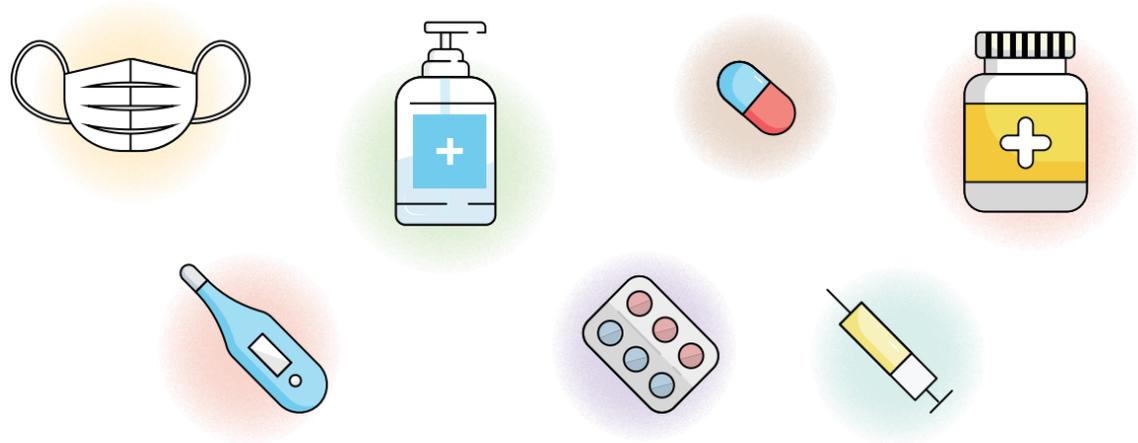
.....

.....

3 내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갔던 일을 떠올려 써 봅시다.

보기 나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은 나에게 배를 따뜻하게 하라고 하셨다.

- 나는 열이 나서 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은 나에게 _____.
- 나는 _____ 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은 나에게 _____.
- 나는 _____ 병원에 갔다.
 _____.



4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병을 고쳤을까」를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써 봅시다.

- 옛날 사람들은 감기를 고뿌이라고 불렀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배움 다지기

- 글을 읽고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였나요?
- 글을 읽고 새로운 사실을 찾았나요?

